

설날가정에배순서



기독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설날가정예배순서

인도자 : 가족 중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정한 뒤,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모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 기도자를 정합니다.

예 식 사 인 도 자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기도 인 도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찬 송 559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기 도 가족 중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모든 계획과 다짐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부모에게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날과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예 배 소 서 4 : 1 - 3 가족 중에서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회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까운 공동체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예배소서 말씀은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족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겸손과 온유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강한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을 높이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은 한 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2025년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 송 310장(또는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 다 함 계
기 도 가족 중에서
주 기 도 문 다 함 계

*각 가정은 예배문을 참조하여 가정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묘 가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조상)의 묘 앞에 모여
잠시 동안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 : 488장(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

◦명절에 부모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기르실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
명절에도 시름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니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때때옷으로 차려입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못 다한 효도를

자식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형편에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희망의 터전을 일구다 가신 부모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 요한복음 11:25-26

◦설교 : (생략할 수 있다.)

◦찬송 : 301장

◦주기도문

(예배 후 차려온 음식이나 과일을 먹으면서 가장이나 가족 중 대표가 자기 가족의 뿌리를 알려주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